

세모 휴대용 컴퓨터 자체개발

錦湖 50시리즈 VTR타이어 개발

▲錦湖

금호는 광주공장에서 50시리즈 VR타이어를 국내 최초로 개발 양산 체제를 갖춰 5월부터 유럽에 수출을 시작한다.

금호는 85년도에 60시리즈를 개발한 이래 상품화하기에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로 하는 50시리즈를 지난 연말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국내 타이어 업계 기술을 한차원 높였다. 이번에 개발된 50시리즈 VR (Very Highspeed Radial)타이어는 선진국에서 보통 신제품 개발기간을 2년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이번에 개발된 50시리즈는 1년으로 단축, 개발비를 타제품에 비해 절반정도인 20억원 투자로 인해 절반정도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50시리즈 초광폭 타이어를 유럽지역에서 폭스바겐GT를 이용 각종 성능시험을 거쳐 최근 유럽경제위원회에서 공인하는 품질인정제도(독일의 T:UV시험소 시행)를 국내 최초로 E-NO를 획득했다. E-NO는 유럽지역 수출에 있어 품질표시이므로 5월부터 유럽에 50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된다.

50시리즈 타이어는 폭이 넓은 초광폭타이어이므로 시속 2백4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초고속 VR타이어(2백

40km 이상은 ZR)로 우리나라 타이어도 수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아닌 기술경쟁력의 바탕으로 세계타이어 시장에 도전하는 새로운 황을 열었다.

50시리즈 신제품은 현재 유럽지역에 전량 수출할 예정이며 또한 북미시장도 겨냥하고 있다.

국내 시판은 현재 50시리즈 타이어를 장착할 자동차를 생산치 못하고 있으나 94년부터 국내에도 스포츠카 등의 개발로 50시리즈를 시판할 예정이다. 금호가 50시리즈를 개발로 기술보유측면에서 세계 선진타이어 생산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한 계기로 만들었고 92년까지 30시리즈 개발도 자체 기술진에의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계 타이어 생산업체들은 고성능 타이어의 대한 개발경쟁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현실에서 선진 타이어업체들은 30시리즈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세모

세모가 휴대용 컴퓨터를 자체 개발, 컴퓨터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모는 지금까지의 스쿠알렌 완구 관광 등 기존 산업분야에서 컴퓨터 생산을 통한

제조업을 주력분야로 육성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개발에 나서 최근 노트북 크기의 휴대용 컴퓨터인 프리노트 SN-6000을 개발, 내달부터 수출 및 내수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노트북 컴퓨터는 1MB의 기본용량에 4MB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그래픽카드, 게임카드 등을 쓸 수 있는 확장슬롯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한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고, 충전 및 방전용 배터리가 내장돼 전원공급 없이도 2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에서도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세모는 내달부터 내수판매에 나서는 한편 유럽 및 미국시장의 수출도 추진, 올해 1백억원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중으로 성능이 더욱 향상된 386SX CPU를 사용한 신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세모는 지난 79년이래 전기전자사업부를 통해 컴퓨터 주변기기인 모니터와 VGA카드를 생산 수출해 왔으며, 지난해 가을부터는 臺灣의 난탄컴퓨터로부터 OEM으로 랩톱컴퓨터 및 노트북컴퓨터를 도입해 판매해오다가 자체 개발을 통한 직접 생산에 나섰다.